

별첨1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말 씬 자 료

2024. 7. 2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청년 여러분,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을 맞아,
청년 여러분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성과와 운영방향,
청년금융 여건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도입 의의와 성과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여러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자산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일 것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면서
청년들의 저축과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설계·도입하였습니다.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청년 13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약 600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한 것입니다.

또한, 계좌 가입유지율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대다수 청년들이
가입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산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시중 적금상품 가입유지율이 45% 내외라는 점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은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 적금 가입유지율 : [은행권 일반적금] 45% 내외^{1년 만기}
[청년희망적금] 80%^{1년 경과} → 70%^{2년 경과}
[청년도약계좌] 90%^{1년 경과}

지난 6월에는 ‘청년금융 포커스그룹’을 구성하여
청년들을 심층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매력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무분별한 소비·투자를 제어하면서
저축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 자산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도입취지를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자산포트폴리오의 기반(anchor)이 되도록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가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thin-filer)들의 신용도를 높이고
자산관리 등 금융역량도 쌓을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①앞으로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신용평가시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용도가 저평가 받고 있는 청년들의
신용축적(credit build-up)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걸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연내 구축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자산·부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 강좌,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산관리·재테크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場)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자산·부채관리 역량을 높이고,
금융경험과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아울러, 부분인출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청년들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목돈이 필요한 부득이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에서 가능

청년들은 이미 도입된 적금담보부대출 뿐만 아니라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계좌를 유지하면서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④ 이밖에도, 은행권과 함께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필수정보, 혜택 등을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저축유인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 청년금융 여건 개선방향

참석자 여러분,

지금 청년 세대의 경우, 기존 세대에 비해
소득흐름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졌습니다.

반면, 경제 구조적 변화로
앞으로 깊어지게 될 잠재적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보편적 자산형성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금융여건을 개선하여,
기회와 부담의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그 중심축 역할을 맡겠습니다.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은행권과 함께 오늘 마련한 추진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수요와 애로를 경청하면서
보다 나은 금융여건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도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